

아동의 개인, 가족 변인 및 학교적응과 공격성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Aggression and the Variables as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Adjustment

이경님**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Lee, Kyung-Nim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aggression and the variables such as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adjustment. For this study, individual variables included age, self-esteem, and game-addiction tendency. Family variables included mother's controlling parenting, child-abuse, parents' marital conflict. As for school adjustment, teacher relations, peer relations, classroom and rule adjustment in school were examined.

The sample consisted of 642 children of the fifth and sixth grade in Busan. Statistics and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included frequency, percentage, Cronbach's alpha, factor analysis, two-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Several major results were found from the analysis: First, boys' aggression was higher than girls'. But no age difference was found in children's aggression. Second, game-addiction tendenc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hildren's aggression. In addition, self-esteem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boys' aggression. Third, mother's controlling parenting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hildren's aggression. Child abuse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boys' aggression, and parents' marital conflict with girls' aggression. Fourth, teacher relations, peer relations, classroom and rule adjustment in school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boys' aggression. In addition, rule adjustment in school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girls' aggression. Fifth, game-addiction tendency, rule adjustment in school, self-esteem, mother's controlling parenting and teacher relations in school were important variables predicting boys' aggression. On the other hand, game-addiction tendency and rule adjustment in school were important variables predicting girls' aggression.

Key Words : aggression, self-esteem, game-addiction tendency, mother's controlling parenting, school adjustment

I. 서론

최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비롯한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된 행동은 두드러지게 표면화, 과격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저연령화 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공격성이란 의도적으로 생명체를 해치거나 상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을 가진 모든 형태의 행동으로 정의된다(Baron & Byrne, 1994). 공격성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게하는, 혹은 화를 야기하는 정서상태까지도 포함된다. Orpinas와 Frankowski(2001)에 의하면, 공격성에는

때리고 위협하고 욕하고, 말다툼하는 외현적인 신체, 언어 공격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정서상태인 분노가 포함되고 있다.

공격성은 상당히 안정적이며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아동기에 형성된 공격성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도 공격적이며 다양한 폭력 및 범죄를 보이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udly & Graham, 1993). 공격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의 증가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며 초등학교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중재를 모색하고 예방함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에 의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공모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Lee, Kyung-Nim

Tel: 051) 200-7311, Fax: 051) 200-7312

E-mail: knlee@daunet.donga.ac.kr

인들은 크게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개인변인과 아동의 환경 변인으로 대별되었으며 환경 변인은 다시 가족변인과 학교변인으로 구분되었다.

아동의 공격성을 다룬 기존의 연구에서 공격성의 발달적 변화와 성에 따른 차이는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아동의 공격성 발달의 특성은 연령에 따라 극적으로 변한다는 점이다(Shaffer, 1999). 공격성은 이미 생의 초기에 발견되는데,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도구적 공격성은 생후 12개월의 유아에서도 나타난다(Caplan et al, 1991). 2세에서 3세 유아들은 놀이친구가 자신을 공격했을 때 단순한 분노표출에서 신체적인 공격으로 전이되는 행동을 보인다. 신체적 공격성은 3세에서 5세 사이에 조금씩 감소되며 언어적 공격성으로 대체된다(Goodenough, 1931). 4세에서 7세 사이에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의도적인 적대적인 공격성이 증가하며(Hartup, 1974), 이는 아동기 동안 지속된다. 아동중기 이후의 공격성은 상당히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며(Cairns et al, 1989), 8세에서 12세의 아동의 공격성은 이후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고 본다(Farrington, 1978). 적대적이고 외현적인 공격성은 13세에서 15세 사이 가장 많이 발견되다가(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현적인 공격성은 남아의 경우 오히려 절도, 무단결석,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전환되기도 하며(U.S. Department of Justice, 1995), 이후 성인기의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Hudley & Graham, 1993).

공격성의 성차를 밝힌 대부분의 연구에서 외현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성은 명백한 성차를 보인다는 데 일치되고 있다.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의 자료를 분석한 보고에 의하면 남아나 남성이 여아나 여성보다 신체적, 언어적으로 더 공격적이라고 밝혀지고 있다(Harris, 1992; Maccoby & Jacklin, 1974). 국내에서 외현적인 공격성을 성차로 살펴본 다수의 연구들(김종미, 1997; 윤리라, 1999)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임을 밝히고 있다.

연령이나 성별이외에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다양한 아동개인특성과 환경요인이 있다. 오랫동안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 변인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만족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여(Brown & Mankowski, 1993),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된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부적상관이 있으리라 예측된다. 실제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남, 여아동이 또래공격성이 높으며(도현심, 최미경, 1998),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이 폭력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

고되었다(신종순, 1995). 또한 자신에 대한 평정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수준이 낮으며(McMahon & Watts, 2002; Simons et al, 2001), 낮은 자아존중감은 폭력행동 및 약물사용 등의 문제행동의 예언변인임이 밝혀지고 있다(Devoice, 1999).

최근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게임 중독성향이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의 상징적인 놀이수단인 인터넷 게임은 테크놀로지 기술교육의 좋은 매체가 될 수 있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소 및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게임의 이용시간이 많고 나아가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공격적 행동의 증가는 인터넷 게임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가장 부정적 영향중의 하나이다(정유정, 이숙, 2001; Griffiths, 1999). 대부분의 게임은 죽음, 파괴 및 폭력의 장면이 많아(Griffiths & Hunt, 1998)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현실에서도 게임의 공격행동을 모방하거나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Marion, 1983).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게임의 사용시간이 많거나, 중독적인 사용이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으며(정유정, 이숙, 2001; 조아미, 2000) 폭력적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이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서은희, 2000)고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게임중독성향은 최근 아동의 공격성의 중요한 예언변인임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동시에 아울러 지금까지 밝혀진 다른 관련 변인들과 비교하여 공격성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공격성에 기여하는 결정적인 환경요인은 강압적인 가정환경(coercive home environment)이다(Patterson, Reid & Dishion, 1992). 강압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녀를 수용하거나 인정하는 대신 체벌과 언어적 폭력으로 혼욕하거나 강압적이며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폭력 및 공격 행동의 모델이 되어 아동들로 하여금 타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공격행동을 학습하게 한다. 그리하여 이들 아동들은 또래에게, 혹은 성인에게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및 자기통제가 결여된 문제행동을 보이게 되며, 부모들은 이들 자녀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시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여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가설은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음을 밝힌 많은 연구들에서 검증되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권위중심의 강압적 혼욕방법의 부모의 자녀들은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며(장미도, 1997; Hart et al, 2000), 냉정하고 거부적인 부모의 자녀들

은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Eron, 1980; Olweus, 1993).

부모의 권위 통제적 양육행동과 함께 아동의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가족 환경 요인은 부모의 자녀학대이다. 아동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더 많은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보이며 (George & Main, 1979)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외현적인 공격성과 우울, 불안 등의 내재적 행동문제를 표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ernberg, et al, 1993). 또한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김현수, 1997; 노치영, 1988),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학대경험이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McFadyen-Ketchum, et al, 1996).

부모가 자녀의 공격성의 직접적인 모델이 되는 또 하나의 가족환경요인은 부모의 부부간의 갈등 및 폭력이다. 부부갈등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는 부모는 자녀의 직접적인 모델링이 되어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행동장애를 보이는 소녀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소녀의 부모들보다 부부간에 더욱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다(Jhonson & O'Leary, 1987). 또한 외현적인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결혼갈등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Hart et al, 2000). 그리고 부모의 부부관계 갈등은 부모자녀 관계를 통하여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Fincham et al, 1994). 즉, 부모의 부부관계갈등은 자녀들에게 분노의 감정표출, 무관심, 거부등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야기하고(Holden & Ritchie, 1991), 이는 아동의 공격성 및 비행행동을 증가시키게 된다(Harold & Conger, 1997; Wolfe, 1985). 이처럼 부모의 부부갈등 및 폭력사용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같이 부모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자녀에 대한 학대 및 부부폭력 사용은 부정적인 가족환경으로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학령기 이후 고학년 아동의 공격성은 가족환경 뿐만 아니라 가족외부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시작한다(Patterson, 1986). 학교는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인 공식적 기관들 중 학령기 후기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비중있는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활의 장이다. 즉, 학령기 후기 이후 아동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므로, 학교는 이들 아동의 지적, 사회 정서적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장환경이며, 사회화과정의 대행자

(agent of socialization)이다(Shaffer, 1999). 그러므로 학교 생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다양한 사회정서적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높다(Reinert, 1976).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리라 가정된다. 실제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아동은 여러 행동문제를 표출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이나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가 많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이정구, 1999)에서 공격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 보다 교사관계, 교우관계와 학교규칙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또한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이 많을수록 학생의 과다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였으며(이상균, 1999) 교사의 지지와 학생의 공격성 및 폭력성은 부적상관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정재임, 2000).

위와 같이 아동의 연령, 성, 자아존중감, 게임중독성향의 개인변인,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부모의 아동학대, 부부간의 갈등 시 폭력사용의 가족변인과 학교적응이 아동의 공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보면, 아동의 공격성과 이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각각 개별적으로 검증되었으며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였다. 공격과 폭력행동이 아동의 가장 빈번한 문제행동의 하나임(Orpinas & Frankowski, 2001) 감안할 때 아동개인변인, 가족변인 및 학교적응을 함께 고찰하여 이들이 아동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나아가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이들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시급하다고 본다.

한편,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성에 따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아동의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는데 일치되고 있으므로(윤리라, 1999; Harris, 1992),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이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예측변인들을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연구는 의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위에서 지적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과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공격성이 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의 개인 및 가족 변인과 학교 적응이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이들 개인 및 가족변인과 학교적응의 상대적 영

향력을 성별에 따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아동의 개인변인과 가족변인 및 학교적응이 공격성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아동의 공격성을 중재하고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공격성은 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공격성과 개인 및 가족변인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2-1. 아동의 공격성과 개인변인(자아존중감, 게임중독 성향)과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2-2. 아동의 공격성과 가족변인(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신체 및 정서학대, 부모의 부부갈등)과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2-3.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적응(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과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개인 및 가족변인과 학교적응의 상대적 중요성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 4개 공립초등학교의 5학년과 6학년에 재학 중인 642명의 아동이다. 이 중 5학년은 319명(49.7%), 6학년은 323명(50.3%)이며, 남아 345명(53.7%), 여아 297명(46.3%)이다. 이들 아동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41세에서 45세가 53.6%, 36세에서 40세가 28.4% 어머니의 경우 36세에서 40세가 54.2% 41세에서 45세가 28.7%로 부모의 연령은 대부분 36세에서 45세임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46.0%로 가장 많았으며 초대졸 이상이 40.4%,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50.8%로 가장 많았으며 초대졸 이상이 32.9%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기술직 22.9%, 자영업 31.0%, 피고용기능인, 29.9%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주부가 48.4%, 직업이 있는 어머니 49.5%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보통 69.2%, 부유한편 18.7%, 가난한편 12.0%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동의 공격성척도, 개인 변인과 가족 변인 및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1) 공격성 척도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후기 및 초기청소년의 공격성을 신체·언어 공격과 분노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Orpinas와 Frankowski(2001)의 초기 청소년용 자기보고형 공격성 척도(Aggression Scale; A Self-Reported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를 기초로 Buss와 Perry(1992)의 공격성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를 참조하여 모두 19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들 19문항으로 구성된 아동의 공격성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Scree test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여 2개 요인으로 지적했을 때 가장 적합한 문항구성을 이루었다. 요인부하량이 2개의 구인에 공통적으로 .40을 넘는 한 문항은 제외되었고 모두 18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그 결과 첫 번째 요인은 모두 12문항으로 전체변량의 26.83%를 설명하였으며, 신체·언어공격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모두 6문항으로 전체변량의 19.64%를 설명하였으며, 분노로 명명하였다. 그리하여 두 번째 요인까지 설명되는 누적변량은 46.47%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한 학기동안 문항내용의 공격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의 빈도로 '전혀 없었다' 0점, '1회' 1점, '2-3회' 2점, '4-5회' 3점, '6회 이상' 4점으로 평정하여 측정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2) 개인적 변인

(1)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 5문항, 부정적 5문항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2) 게임중독성향

아동의 게임중독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Young(1999)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인터넷 중독검사(The Internet Addiction Test)를 기초로 아동의 게임상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 사용한 이경남(2004)의 게임중독척도에서 8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게임중독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3) 가족변인

(1)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과 이숙(1999)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에서 권위주의적 통제영역의 6문항을 선정하여 아동용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어머니를 더 권위적이며 더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8로 나타났다.

(2) 신체·정서학대 경험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로부터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권자영(1991)의 신체적 학대척도와 신영화(1986)의 정서적 학대척도에서 각 4문항씩 모두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없었다'에서 '자주 그랬다'의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신체적·정서적 학대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신체적 학대 .81, 정서적 학대 .79로 나타났다.

(3) 부모의 부부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영옥과 이정덕(1996)의 부부갈등척도 중 일부문항을 선정하여 재구성한 박민정(2003)의 척도에서 부부갈등 시 폭력사용에 관한 4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부모의 부부갈등이 많고 폭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4) 학교 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숙영(1997)의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교사관계, 교유관계, 학교수업 및 학교규칙의 4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에서 5문항씩을 선정하여 모두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학교에서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및 학교규칙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교사관계 .69, 교우관계 .85, 학교수업 .81, 학교규칙 .63 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04년 11월 3일 부산시에 소재한 1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의 1학급씩을 임의로 표집하여 질문지의 문항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고, 조사방법의 적절성과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결과 질문지의 문항에 대한 이해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절차에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2004년 11월 15일에서 27일에 걸쳐 부산시의 수영구, 사상구, 해운대구의 3개 공립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의 모두 22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자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뒤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아동에게 질문지가 배부되고 응답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는 제외되어 최종 642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 되었다. 먼저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공격성의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공격성 및 개인변인과 가족변인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공격행동에 대하여 개인변인과 가족변인 및 학교적응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학년과 성에 따른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이 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위하여 먼저 학년과 성별 아동의 공격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나타난 아동의 공격성점수가 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아동의 공격성은 성에 따른 주효과 ($F=28.672, p<.001$)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학년의 주효과와 학년과 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학년과 성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5학년	6학년	합계
남	M	22.02	22.41	22.23
	(SD)	(13.31)	(12.53)	(13.91)
여	M	16.16	17.37	16.74
	(SD)	(10.90)	(12.07)	(11.47)
합계	M	19.18	20.19	19.69
	(SD)	(12.53)	(11.47)	(13.12)

<표 2> 아동의 공격성점수에 대한 학년과 성의 이원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년	100.574	1	100.574	.609
성	4735.382	1	4735.382	28.672***
학년*성	26.801	1	26.801	.162
오차	105371.6	638	165.159	
합계	359123.0	642		

*** $p<.001$

2.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과 개인 및 가족변인과 학교적응의 관계

1)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과 개인 변인간의 관계

아동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과 게임중독성향의 개인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위하여 성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과 개인변인간의 관계

	자아존중감	게임중독성향
남아	-.277***	.303***
여아	-.091	.284***

*** $p<.001$

<표 3>에 의하면 남아와 여아의 공격성은 게임중독성향과 정적상관(남아: $r=.303, p<.001$, 여아: $r=.284, p<.001$)이 나타났다. 또한 남아의 경우 공격성은 자아존중감과 부적상관 ($r=-.277, p<.001$)이 나타났다. 즉 남아와 여아 모두 게임중독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과 가족변인간의 관계

아동의 공격성과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부모로부터의 신체·정서학대 경험 및 부모의 부부갈등의 가족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위하여 성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남아와 여아의 공격성은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남아: $r=.184, p<.01$, 여아: $r=.175, p<.01$)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남아의 공격성은 부모의 부부갈등 시 폭력사용($r=.119, p<.05$)과 여아의 공격성은 부모로부터의 정서학대경험 ($r=.118, p<.05$)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권위통제적일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아의 경우 부모의 부부갈등 시 폭력사용이 많을수록 여아의 경우 부모로부터 정서학대의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과 가족변인의 관계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부모로부터의		부모의 부부갈등시 폭력사용
		신체학대	정서학대	
남아	.184**	.097	.088	.119*
여아	.175**	.046	.118*	.075

* $p<.05$ ** $p<.01$

3)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에서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 및 규칙 적용의 관계를 살펴보기위하여 성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남아의 공격성은 학교에서의 교사관

<표 5>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적응의 관계

	학교 적응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남아	-.212***	-.116*	-.160**	-.262***
여아	-.045	.020	-.074	-.228***

*p<.05 **p<.01 ***p<.001

계($r=-.212$, $p<.001$), 교우관계($r=-.116$, $p<.05$), 학교수업($r=-.160$, $p<.01$) 및 학교규칙($r=-.262$, $p<.001$)과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여아의 공격성은 학교규칙($r=-.228$, $p<.001$)과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남아는 학교에서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및 학교규칙에 잘 적응하지 못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여아는 학교규칙에 잘 적응하지 못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3.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개인 및 가족변인과 학교적응의 상대적 중요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회귀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각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를 성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각 독립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남아 .519, 여아 .494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1)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개인 및 가족변인과 학교적응의 상대적 영향력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변인과 학교적응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위해 각 변인군을 독립변인군으로 묶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표 7>에 의해 오차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단계에서 Durbin-Watson 계수가 1.974~2.187의 범위로 나타나 오차항간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표 7>에 의해 먼저 1단계에서는 남아의 공격성에 대하여 개인변인인 학년, 자아존중감 및 게임중독성향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게임중독성향($\beta=.243$, $p<.001$), 자아존중감($\beta=-.216$,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아의 공격성을 13.3%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가족변인이 남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위하여 1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과 부모로부터의 신체·정서학대 경험, 부모의 부부갈등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beta=.129$,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단계에서의 개인변인인 게임중독성향과 자아존중감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아의 공격성을 15.4% 설명하여 1단계 보다 2.1%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는 학교적응이 남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단계 회귀모델에 학교에서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및 학교규칙 적용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규칙($\beta=-.180$, $p<.01$)과 교사관계적응($\beta=-.134$,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표 6>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

여아 \ 남아	1	2	3	4	5 ¹⁾	6	7	8	9	10
1	1	.034	.066	-.061	.045	-.034	-.058	.043	-.124*	-.182**
2	.083	1	-.137*	-.235***	-.223***	-.169**	.276***	.473***	.414***	.313***
3	.090	-.252***	1	.301***	.254***	.144*	-.034	-.056	-.180**	-.127*
4	-.112*	-.148**	.216***	1	.410***	.273***	-.079	-.272***	-.082	-.060
5	-.113*	-.125*	.102	.388***	1	.319*	-.071	-.245***	-.149*	-.078
6	-.025	-.174**	.139*	.278***	.426***	1	.001	-.188**	-.111	-.033
7	-.049	.189***	-.139*	-.089	-.192	-.064	1	.359***	.494***	.328***
8	.086	.385***	-.088	-.059	-.170**	-.175**	.358***	1	.481***	.246***
9	-.034	.320***	-.238***	-.109*	-.162**	-.154**	.519***	.418***	1	.389***
10	-.006	.245***	-.213***	-.022	-.115*	-.077	.293***	-.246***	.364***	1

*p<.05 **p<.01 ***p<.001 대각선위: 여아 밑: 남아

1.학년, 2.자아존중감, 3.게임중독성향, 4.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5.신체·정서학대경험, 6.부모의 부부갈등, 7.교사관계, 8.교우관계, 9.학교수업, 10. 학교규칙

1)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남아의 경우 높은 상관을 보였으므로(.78) 이후 두 유형의 점수를 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7〉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변인과 학교적응의 위계적 회귀 분석

	공격성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개인변인						
학년	.491	.018	1.329	.048	.598	.022
자아존중감	-.572	-.216***	-.511	-.195***	-.410	-.157**
게임중독성향	.490	.243***	.447	.225***	.437	.220***
가족변인						
어머니의 권위·통제양육행동			.386	.129*	.412	.139*
신체·정서학대경험			-.043	-.012	-.126	-.036
부모의 부부갈등			.165	.029	.232	.041
학교적응						
교사관계					-.438	-.134*
교우관계					.050	.018
학교수업					.218	.073
학교규칙					-.624	-.180**
D-W 계수	1.974		2.056		2.187	
상수	25.385		14.240		26.609	
R ² 증가량			.021		.057	
R ²	.133		.154		.211	
F	17.024***		9.627***		7.798***	

*p<.05 **p<.01 ***p<.001

D-W: Durbin-Watson 계수

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변인인 게임중독성향과 자아존중감, 가족변인인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아의 공격성을 21.1% 설명하여 2단계보다 5.7%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남아의 공격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개인 변인인 게임중독성향($\beta=.220$, $p<.001$)이었으며 그 다음 학교적응 중 학교규칙적응($\beta=-.180$, $p<.01$), 개인변인인 자아존중감($\beta=-.157$, $p<.001$), 가족변인인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beta=.139$, $p<.05$), 학교적응 중 교사관계적응($\beta=-.134$, $p<.05$)의 순으로 남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개인 및 가족변인과 학교적응의 상대적 영향력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변인과 학교적응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군을 독립변인군으로 묶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표 8>에 의해 오차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단계에서 Durbin-Watson 계수가 1.829~1.905의 범위에 있었으므로 오차항간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표 8>에 의해 먼저 1단계에서는 여

아의 공격성에 대하여 개인변인인 학년, 자아존중감 및 게임중독성향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게임중독성향($\beta=.279$,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아의 공격성을 8.8%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가족변인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단계 회귀분석모델에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적 양육행동과 부모로부터의 신체·정서학대 경험 및 부모의 부부갈등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여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개인변인인 게임중독성향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아의 공격성을 9.5%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는 학교적응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에서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및 학교규칙 적용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규칙($\beta=-.212$, $p<.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변인인 게임중독성향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아의 공격성을 13.5% 설명하여 2단계보다 4.0%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아의 공격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개인변인인 게임중독성향($\beta=.218$, $p<.001$)이며, 그 다음 학교규칙적응($\beta=-.212$,

〈표 8〉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개인 및 가족변인과 학교적응의 위계적 회귀분석

	공격성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개인변인						
학년	.781	.034	.887	.039	.218	.009
자아존중감	-.127	-.060	-.075	-.034	-.037	-.017
게임중독성향	.619	.279***	.564	.253***	.485	.218***
가족변인						
어머니의 권위·통제양육행동			.285	.094	.365	.121
신체·정서학대경험			-.048	-.008	.006	.001
부모의 부부갈등			.039	.009	.142	.031
학교적응						
교사관계					-.117	-.040
교우관계					.307	.127
학교수업					.083	.031
학교규칙					-.701	-.212**
D-W 계수	1.904		1.905		1.829	
상수	7.504		3.171		10.933	
R ² 증가량			.007		.040	
R ²	.088		.095		.135	
F	9.300***		4.928***		4.196***	

p<.01 *p<.001
D-W: Durbin-Watson 계수

p<.01)의 순으로 여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공격성의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과 게임중독성향의 아동개인변인,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자녀에 대한 신체·정서학대, 부부갈등 시 폭력사용의 가족변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 및 규칙적응의 학교적응과 공격성의 관계와 공격성에 대한 개인변인, 가족변인과 학교적응의 상대적 중요성을 성별에 따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공격성은 5학년과 6학년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격성이 5학년과 6학년 아동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동중기 이후의 공격성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연구(Cairns et al, 1989)와 일치한다. 따라서 아동

기 중기, 후기동안의 아동의 공격성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아의 공격성이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이라는 많은 연구들(김종미, 1977; 윤리라, 1899; Harris, 1992)과 일치한다. 이로써 외현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성에 관계없이 게임중독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의 게임사용시간이 많을수록, 게임중독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정유정, 이숙, 2001; 조아미, 2000), 폭력적 PC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이 공격행동이 더 많다는 연구(서은희, 2000)와 일치한다. 또한 이는 비디오게임 등의 미디어 폭력과 공격 및 폭력행동은 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Freedman, 1984)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컴퓨터게임의 내용이 폭력과 파괴의 장면이 많아 아동이 컴퓨터게임에 몰입하고 중독성향이 높을수록 게임 장면들을 모방 학습하여 현실의 일상생활에서도 폭력과 공격행동을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적 미디어 관람이 폭력과 관련된 사고를 증가시키고 그로인해 실제의 비슷한 상황에서 폭

력행동을 증가시키는 것과 유사하게(Berkowitz, 1984), 아동의 게임중독성향이 높을수록 폭력행동과 관련된 사고를 많이하고 이로 인해 공격성이 증가되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정유정, 이숙, 2001). 또한 남아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과 자아존중감간에 부적의 상관성이 나타난다는 연구들(신종순, 1991; Fing et al, 1992), 신체언어공격과 분노를 합한 청소년의 전체공격성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장휘숙, 2002),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중학생의 주도적-외현적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박민정, 2003)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로써 남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아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의미있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아동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직접 확인되는 외현적인 공격성에 관심을 두고 여아에서 많이 보이는 관계적 공격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여아의 경우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유를 본 연구에서 설명하기에는 무리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외현적공격성 뿐만 아니라 관계적 공격성이 포함되어 성별에 따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은 남아와 여아의 공격성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거부, 간섭, 체벌, 엄격한 훈육이 자녀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임선화, 1987; Olweus, 1993), 애정부족, 강압적인 훈육, 신체적 처벌 등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Hart et al, 2000)와 일치하였다. 이는 자녀에게 애정을 표시하지 않으며 칭찬하지 않고 자녀를 통제하기 위하여 권위주의적인 훈육으로 억제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오히려 그들 자녀들로 하여금 종종 부모에게 반항하게하고 자제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르게 하여 자녀들의 공격적 행동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Patterson et al, 1989). 그러므로 아동의 공격성을 예방하고 감소하기위하여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대하고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과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통제함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아의 부모로부터의 정서학대 경험은 공격성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로 살펴보는 않았지만 부모로부터의 언어적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미경, 2000)와는 대체로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아의 공격성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격성의 하위유형인 신체언어공격과 분노를 구분하여 남아와 여아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경험 간의 관계를 추후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로부터의 신체학대 경험과 정서학대경험은 신체언어공격과는 관련성이 없었으나 남아와 여아 모두 분노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경험은 직접적인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정서상태인 분노와는 관련이 있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라 볼 수 있다. 부모의 부부갈등 시 폭력사용은 남아의 공격성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박미경, 2000), 부부갈등에 노출된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공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원지영, 1999)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아의 경우에만 부부폭력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폭력의 대부분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인 경우가 많으므로 아버지의 폭력과 공격행동이 동성인 남아에게 더 잘 모방 학습되어 부부갈등 시 폭력사용이 남아의 공격성 증가에 위험한 요인이 되었으리라 유추된다. 이로써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신체·정서학대, 부부갈등 시 폭력사용은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가정환경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공격성을 예방하고 중재하기위한 방안이나 프로그램은 부모나 가정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효율적 일수 있다고 본다.

남아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및 학교규칙에 적용하지 못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아의 경우 학교규칙에 적용하지 못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보다 교사관계, 교우관계와 학교규칙에 적용을 잘하지 못하며(이정구, 1999), 교사의 지지와 공격성 및 폭력행동은 부적상관이 있다는 연구(정재임, 2000)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는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아동은 학교생활에 불만과 갈등이 많고 학업에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으므로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여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문제를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학교적응과 공격성이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의 경우 외현적인 공격성이 남아보다 빈도가 낮으므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 그런데 이러한 추측은 여아의 경우 많이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이 포함되어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구에서 좀더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남아와 여아의 공격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게임중독성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게임의 사용시간이 많고 중독성향이 높을수록 폭력과 공격행동이 많다는 최근의 많은 연구들(정유정, 이숙, 2001; Griffiths, 1999)에 의해 지지된다. 이러한 게임의 중독성향이 공격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의 일치는 최근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게임몰입 혹은 중독적 사용임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공격성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방안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이 인터넷을 오락과 게임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한국인터넷 정보문화센터, 2000)과 게임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독적 특성(이경남, 2004참조)을 감안할 때, 최근 증가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 및 공격성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방안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에 무엇보다 아동의 게임의 적절한 사용과 바람직한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남아와 여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두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학교규칙적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의 규율이나 규칙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이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반면 학교생활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하여 자신을 조절하며 잘 적응하는 아동이 공격적인 욕구나 충동을 억제하고 자제할 수 있으므로 공격적인 행동이 적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공격적인 아동을 중재 예방하고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학교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하고 규율이나 규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남아의 경우 교사관계적응이 아동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교사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교사로부터의 지지 및 인정 등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남아의 공격성을 차단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남아의 공격성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하므로(Brown & Monkowski, 1993), 공격적인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남아의 경우 여아의 경우 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권위 통제적 양육행동이 남아의 공격성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이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가족환경이며 이는 남아의 경우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공격성은 명백한 성차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그런데 아동의 공격성에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성별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확인하고 일반화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공격성은 5학년과 6학년 간에 안정적이며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 둘째, 남아와 여아 모두 게임중독 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 또한 남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권위적이며 통제적 일수록 남아와 여아 모두 공격성이 높다. 또한 남아의 경우 부모의 부부갈등시 폭력사용이 많을수록 여아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정서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높다. 넷째, 남아와 여아 모두 학교규칙에 잘 적응 하지 못할수록 공격성이 높다. 또한 남아의 경우 교사관계, 교우관계 및 학교수업에 잘 적응 하지 못할수록 공격성이 높다. 다섯째, 남아와 여아의 공격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게임중독성향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남아의 경우 학교규칙적응,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교사관계적응 순으로 여아의 경우 학교규칙적응의 순으로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써 최근 증가되고 있는 아동의 게임몰입과 중독적 사용이 공격성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자녀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부부갈등은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임을 시사한다. 반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남아의 공격성에 보호요인이 된다. 그리고 학교적응 특히 학교규칙적응은 아동의 공격성을 차단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 변인과 학교적응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시도 되었으나 선행연구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다. 즉 아동의 기질, 충동성의 개인 변인, 또래관계 및 대중매체 등의 변인이 아동의 공격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되므로 다양한 개인 및 환경 변인이 포함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직접 확인되는 외현적인 공격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또래관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관계적 공격성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여아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많이 나타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이 포함되어 관련 변인

간의 관계 및 상대적 중요성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게임 중독성향의 개인변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부갈등 및 아동학대의 가족변인 및 학교적응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되었다. 그런데 아동의 공격성이 이들 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접근을 통한 이들 변인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주제어 : 공격성, 자아존중감, 게임중독성향, 어머니의 양육행동, 학교적응

참 고 문 헌

- 권영옥, 이정덕 (1996)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한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79.
- 권자영 (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미 (1997)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성격과 유발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0(2), 17-32.
- 김현수 (1997)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 경험과 아동의 또래 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숙영 (1998)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치영 (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최미경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박미경 (2000) 부부갈등 및 아동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이숙(1999)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민정 (2003)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은희 (2000) 폭력적 PC게임이 청소년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영화 (1986) 한국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족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종순 (1991)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리라 (1999) 공격성의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사회정보처리 특성-반응적 공격성과 비 반응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지영 (1999)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 (2004)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게임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99-118.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구 (1994) 학교생활적응과 가족환경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화 (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도 (1987) 아동의 공격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2) 청소년용 공격행동척도의 타당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4(4), 81-96
- 정유정, 이숙 (2001) 남자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이용과 게임중독성 및 공격성. *대한가정학회지*, 39(8), 67-80.
- 정재임 (2000) 청소년의 폭력성 예측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아미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및 중독관련 문제점 및 대책. 2000년 "청소년·법·심리" 법심리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7-37.
- 한국인터넷정보문화센터 (2000) 2000년도 8월 인터넷 이용자 및 인터넷 이용행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http://stat.nic.or.kr//public-html/allym/statistic8html>.
- Baron, RA, Byrne, D (1994)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interaction (7th ed.)*, Newton, MA: Allyn & Bacon.
- Bewkowitz, L (1984)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social 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ffects; A cognitive new associ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5, 410-427.
- Brown, JD, Mankowski, TA (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421-430.
- Buss, AH,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3(13), 452-459.
- Cairns, RB, Cairns, BD, Neckerman, HJ, Ferguson, LL, Garipey, J-L (1989) Growth and aggression: 1.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 Psychology*, 25, 320-330.
- Caplan, M, Vespo, J, Pederson, J, Hay, DF (1991) Conflict and its relation in small groups of one- and two-year-olds. *Child Development*, 62, 1513-1524.
- Devoice, M (1999)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roblem behavio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6), 667-685.
- Eron, LD (1980) Prescription for reduction in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35, 244-252.
- Fing, S, Smith, S, Rodriguez, T, Thomson, D, Atkins, E, Nixon, K (1992) Video games, aggression and self-esteem: A surve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0, 39-45.
- Farrington, DP (1978) Family Background of Aggressive youth. In Hersov, L. A. & Berger, M. (Eds.).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Oxford Pergamon Press.
- Fincham, FD, Grych, JH, Osborne, LN (1994) Does marital conflicts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Freedman, JL (1984) Effects of television on agg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86, 227-246.
- George, C, Main, M (1979) Social interaction of young abused children: Approach and avoidance. *Child Development*, 65, 1678-1693.
- Goodenough, FI (1931) *Anger in young childre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riffiths, MD (1999) Violent video games and aggress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2), 203-212.
- Griffiths, MD, Hunt, N (1998) Dependence on computer games by adolescents'. *Psychological Reports*, 82, 475-480.
- Harold, GT, Conger, R (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ris, NB (1992) Sex, race, and the experience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8, 201-217.
- Hart, CH, Nelson, DA, Robinson, CC, Olsen, SF, Mc, Neilly-Choque MK, Porter CL, Mc kee, TR (2000) Russian parenting styles and family processes: Linkages with subtypes of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In Kerns, K. A., Contretras, J. M., & Neal-Barnett, A. M.(Eds.). *Family and peer: Linking two social worlds*, Westport, Praeger.
- Hartup, WW (1974) Aggression in Childhood: development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9, 336-341.
- Holden, GW, Ritchie, KC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a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Hudley, C, Graham, S (1993) An attributional intervention to reduce peer-directed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boy.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Jhonson, PL, O'Leary, KD (1987) Parental behavior patterns and conduct disorders in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573-581.
- Loeber, R, Stoutha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H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Maccoby, EE, Jacklin, C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rion, L (1983) The confession of a pac men junkie. *Family Weekly*, 2, 6-10.
- McFadyen-Ketchum, SA, Bateo, E, Dodge, KA, Petti, GS (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Gender difference in prediction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2417-2433.
- McMahon, SD, Watts, Rj (2002) Ethnic identity in urban African American You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4), 411-432.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ewell.
- Orpinas, P, Frankowski F (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1. No. 1.* 50-67.
- Patterson, GR (1986) Performance models for antisocial boys. *American Psychologist*, 41, 432-444.
- Paterson, GR, DeBaryshe, BD, Ramser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Patterson, GR, Reid, JR, Dishion, T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elia Publishing.
- Reinert, HR (1976) *Children in Conflict : Educational Strategies for emotionally disturbed and behaviorally*

- disordered*. St. Louis, Mo: C. V. mosby.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 Press.
- Shaffer, D (1999) *Development Psychology(5th)*. Childhood & Adolescence. Broks/Cole.
- Simons, KJ, Paternite, CE, Shore, C (2001) Quality of parent/adolescent and aggression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1(2), 182-203.
- Sternberg, KJ, Lamb, ME, Greenbaum, C, Cicchetti, D, Dawuel, S, Cortes RM, Krispin, O, Lorey, F (1993) Effect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44-52.
- U. S. Department of Justice (1995) *Crime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olfe, DA (1985) Child abusive parents. An empirical review and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7, 462-482.
- Young, KS (1999) *Internet Addiction :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 Vandercreek & T. Jackson(eds),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17, 19-31. Sarar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2005. 10. 10 접수; 2005. 12. 13 채택)